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⑮ 서울 성북구 개운사 자귀나무

운명 바꾸고 싶으면 도량서 마음 열어라

개운사(開運寺)에 가려고 마음먹은 뒤 의미를 찾는데 목에 걸린 가시를 삼킨 듯 개운하게 걸리지 않는다. 여기서 '개운하게'는 순한글 형용사이기에 접점이 없다. 그러다 〈도해 운명을 바꾸는 법〉 서평 기사에서 '전심개운법(轉心改運法)'을 접한다. 마음을 전환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말로서 정해진 운명으로 살 것인가, 운명을 바꾸어 깨달은 자 부처님처럼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시작과 끝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자가 달라 연결이 어렵다.

안암역에서 내려 골목길보다는 넓고 대로보다는 좁은 찻길을 따라 일주문 앞에 다다르니 손을 모으기보다 눈만 껌뻑거린다.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 이리로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곧바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옆길로 좀더 걸어갈까 하다가 일단 주차장을 가로질러 계단을 오르며 위를 본다. 전각들이 더 높은 곳에 있어 절 안에 들어온 것인지 아닌지 흐리멍덩해져 습관처럼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보기 시작하는데, 어디선가 '옴마니반메훔' 소리가 연달아 들려온다.

그곳은 석조관세음보살입상이 있는 야외 도량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손을 모으려고 하다가 조용히 자리를 뜬다. 하늘과 땅을 울릴 듯한 옴마니반메훔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단 한 분의 수행에 끼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분에게 감사의 속말을 전한다. 이제 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다.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정원에서 자주 시를 썼는데, "시의 본질이란 고요 속에 돌아본 감정"이라고 했다. 사찰을 찾는 이유도 그럴 것이다. 소음 가득한 도심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인데, 도심 속 사찰은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런데 그 어떤 시보다 짧지만 강렬한 안정을 주는 간결하고도 깊은 낭송에서 속세와 딱 구분되는 소속감을 가져다준 그 위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열려 있는 석조관세음보살입상의 가피가 아닐까. 그러면서 개운사의 열개(開)는 운명을 뒤바꾸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항시 열려 있는 도량이라는 상상에 다다르고, 그것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절로절로 우리절] 24시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포교중심도량 '서울 안암산 개운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운사 대웅전과 관음전 사이에 있는 자귀나무.

개운사는 조선 최초이자 마지막 왕사인 무학대사가 현재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부근에 절을 짓고 영도사(永導寺)라고 하였다가 이후 정확히 알려진 시기는 없지만 개운사로 이름을 바꾸었단다. 이에 관한 개운사 홈피 자료를 보면, "정조 3년(1779) 5월에 정조의 후궁 원빈(元嬪)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영도사 자리에 묘소를 정하고, 명인원(明仁園)이 세워지자 인파당(人波堂) 축홍(竺洪)스님이 영도사를 동쪽으로 몇 리 떨어진 현재의 자리에 절을 옮겨지었다고 하였으나 '사기(寺記)라는 문헌에는 영조 6년(1730)에 영도사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적혀 있다. 즉 영도사가 개운사로 이름을 바꾼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인데, 개운사는 20세기 이후에 한국 교육불사와 불교의 진보적인 운동을 주도해 왔고, 지금은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이 처음 문을 연 곳이다.

옴마니반메훔 진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계단 주위를 벗어나 비탈길로 오르는데 일자형 사천왕문이 아니라 아치형 사천왕문이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환경에 따라 건축물 구조는 달라지는 게 인지상정인 법, 무심히 경내로 들어가 대웅전을 지나 명부전을 보고는 그 옆 쉼터에서 잠시 머물까 하다가 계단을 올라 산령각, 금륜전, 천대각이 한곳에 모여 있는 전각 뒤 숲을 본다. 그러고는 대웅전 뒤를 지나 관음전 사이에 서 있는데, 대부분이 초록인 가운데 한두 군데에서 흐려지는 연분홍빛을 움켜쥐고 있는 자귀나무가 숲처럼 우거져 있다.

자귀나무는 콩과 낙엽 소교목 또는 교목으로 높이 4~10m까지 자란다. 가지 끝에서 잎 위로 실처럼 뻗어 있는 꽃잎을 공작 깃털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꽃잎이 아니라 25개의 수술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를 받치고 있는 꽃받침이 꽃잎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섬섬옥수 같은 아름다움이 있을 때는 자귀나무인 줄 바로 알 수 있다. 가을과 겨울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10~15cm의 콩깍지 같은 꼬투리 열매를 기억하면 또 자귀나무를 잊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2회깃꼴겹잎이라고 해서 가운데 하나의 잎자루에 7~10쌍의 잎자루가 옆으로 붙어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옆으로 자란 잎자루에는 1~2cm 정도 크기로 낫 모양을 하고 있는 작은 잎들이 짝수로 나 있는데, 이 잎들이 빛의 강약에 영향을 받는 엽침 때문에 밤이 되면 서로 포개진다. 마치 잠을 자는 모습 같다고 해서 자귀나무로 불리는 이 나무는 그래서 부부의 금슬을 상징한다.

개운사의 개운이 궁금했는데, 이제는 자귀나무의 자귀도 무언가를 연결하기 위해 무심코 찾아본다. 부설거사의 '但看心佛自歸依(단간심불자귀의)'가 나타난다.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귀의하시라.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미로에서 무엇을 이어야 할까? 답이 바로 보인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려 있다고. 개운하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⑭ 이상국의 '선림원지(禪林院址)에 가서'

선림, '우리' 마음이 바로 그 '절간'
〈禪林〉

선림원지(禪林院址)에 가서/ 이상국

선림(禪林)으로 가는 길은 멀다
미천골 물소리 엄하다고
초입부터 허리 구부리고 선 나무들 따라
마음의 오랜 폐허를 지나가면
거기에 정말 선림이 있는지

영덕, 서림만 지나도 벌써 세상은 보이지 않는데
닭죽지 비틀어 쥐고 양양장 버스 기다리는
파마머리 촌부들은 선림 쪽에서 나오네
천년이 가고 다시 남은 세월이
몇 번이나 세상을 뒤엎었음에도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 농가 몇 채는
아직 면산(面山)하고 용맹정진하는구나

좋다야, 이 아름다운 물감 같은 가을에
어지러운 나라와 마음 하나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소처럼 선림에 눕다
절 이름에 깔려 죽은 말들의 혼인지 꽃들이 지천인데
경전(經典)이 무거웠던가 중동이 부러진 비석 하나가
불편한 몸으로 햇빛을 가려준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마흔아홉 해가 걸렸구나
선승들도 그랬을 것이다
남설악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그리움 때문에
이 큰 잣나무 밀동에 기대어 서캐를 잡듯 마음을
죽이거나
저 물소리 서러워 용두질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슬픔엔들 등급이 없으랴

말이 많았구나 돌아가자
여기서 백날을 뒹군들 니 마음이 절간이라고
선림은 등을 떼밀며 문을 닫는데
깨어진 부도(浮屠)에서 떨어지는
뼛가루 같은 햇살이나 몇 됫박 얻어 쓰고
나는 저 세간의 무림(武林)으로 돌아가네

–이상국 시집, 〈집은 아직 따뜻하다〉, 창작과비평사, 1998–

수미상관법(首尾相關法),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법을 알고 이 시를 읽으면 그 맛이 한층 더 맛있다. 첫 행의 '선림(禪林)'과 마지막 행의 '무림(武林)'이 그것다. '선(禪)'과 '무(武)', 기껏 한 끗발 차이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다. 그 한 끗발이 '승(僧)'과 '속(俗)', '사바'와 '극락'을 천둥처럼 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불이(不二)이다. 둘이되 둘이 아니고, 하나이되 하나가 아니다. 이상국 시인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이 시를 통해 지금 불이법문(不二法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법문은 "선림(禪林)으로 가는 길은 멀"고 "엄하다"며, "마음의 오랜 폐허를 지나가면" "선림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치미 뚝 떼고 그곳에서 "파마머리 촌부들"이 "닭죽지(를) 비틀어 쥐고" "양양장"에 가기 위해 "나오"고 있다고 '할(喝)' 하고 있다.

세상을 비꼬는 솜씨도 빼어나다. "어지러운 나라와 마음 하나(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소처럼 선림에 눕"지만, "절 이름에 깔려 죽은 말들의 혼"이 "꽃"처럼 "지천"이고, "경전(經典)이 무거"운 나머지 "중동이 부러진 비석 하나가/ 불편한 몸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있다고 '승(僧)'을 꾸짖고 있다.

다음 법문은 더욱 재밌다. "남설악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그리움 때문에" "선승들도" "큰 잣나무 밑동에 기대" "서캐" "잡듯" "마음을 죽이거나" "물소리(가) 서러워 용두질을 했을지도 모른다"며 "슬픔"에도 "등급이" 있다고 홍포(弘布)하고 있다.

마지막 법문은 더욱 재밌다. 선림에 와서 "말이 많았"다며 "여기서 백날" "뒹군들" "니 마음이 절간이라고/ 선림"이 "문" 닫으니 "깨어진 부도(浮屠)에서 떨어지는/ 뼛가루 같은 햇살이나 몇 됫박 얻어 쓰고" (선림이나 무림이나 매한가지니) "무림(武林)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다시 한 번 '할'을 '빵' 터뜨리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상국 시인이 이미 승속의 경계를 뛰어넘은 '왕고수'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왜 이 시를 수미상관법으로 읽어야 하는지도 느낄 수 있다. 선림이 무림이고, 무림이 선림임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다.

맞다. 그것이 불교요, 우주의 작동원리다. 또한 그것이 불교의 보편성이요, 무차별 무차등의 인간관이다. 이틈에 이상국 시인의 '할' 한 방을 더 맛보자.

"동서울터미널 늦은 포장마차에 들어가/ 이천원을 시주하고 한 그릇의 국수 공양(供養)을 받았다/ 가다꾸리가 풀어진 국숫발이 지렁이처럼 굵었다/ 그러나 나는 그 힘으로 심야버스에 몸을 앉히고/ 천릿길 영(嶺)을 넘어 동해까지 갈 것이다/ 오늘밤에도 어딘가 가야 하는 거리의 도반(道伴)들이/ 더운 김 속에 얼굴을 묻고 있다" **이상국의 '국수 공양' 전문–이상국 시집, 〈뿔을 적시며〉**

맛있는 '할' 한 방이 더 있다.

"스페인 축구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세비야에게 골을 자꾸 넣으니까/ 해설자는 보기 안됐던지/ 마드리드에게 자비가 없다고 한다/ 인간이 지어낸 말이긴 하나/ 수천 년 마음의 일이었던 자비가 그렇게/ 격렬한 육체의 일에까지 관여할 줄 몰랐다/ 〈중략〉 자비는 본시 용서나 슬픔의 어머니였는데/ 지금은 지구상에 거처할 데가 별로 없다/ 나는 누구에게 자비를 구한 적이 없거니와/ 〈중략〉 고작 죽을 말이나 따라 다니는 시인을 내버리고/ 박지성이 활약했던 멘체스터 유나이티드쯤에서/ 무자비하게 뛰어보고 싶다" **이상국의 〈자비에 대하여〉 전문–이상국 시집, 〈달은 아직 그 달이다〉**

아, 말이 많았다. 입 닥치고, 필자도 다시 선림으로 들어야겠다. 아니, 무림으로 돌아가야겠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간질성 폐질환에 무너진
미얀마 청년의 일상

2015년 한국 찾은 민팡씨…호흡곤란…기침 잦아 병원 찾았다
폐 딱딱해지는 간질성 폐질환 진단…하루 병원비만 1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